

# 조기전대 개최 놓고 세갈래 ‘野’

### 비주류 “추진” vs 주류 “약속 위반” vs 탈당파 “관심 無”

### 文 “당 단합이 먼저”...전현희, 文대표 강남 출마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여권에 대한 반격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해임 공세 때문에 내부 갈등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도부 정비를 위한 조기전대 개최 문제와 문재인 대표의 출마지역을 놓고 논란은 계속됐다.

이날은 비주류 일부의 조기전대 개최 주장에 대해 주류 측이 정면 반박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탈당파는 신당 중심의 통합론을 주장하면서 새정치연합 전대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류 측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비주류의 조기전대, 조기전대주 주장에 대해 대표 흔들기와 분열 중단을 확인한 지난달 당무위-의원총회 연석회의 결의에 위배된다며 비주류의 약속위반이자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최 본부장은 “호남 민심의 실체가 문 대표의 대척점에 있는 특정 정치인이나 신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각종 지표상 입증되지 않느냐”며 호남 민심이반이 심각하다는 비주류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중립 성향 중진급 인사 8명의 모임인 통합행동 내에서 탈당파까지 포함하는 통합전대론 내지 빅텐트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전대를 하지는 것은 ‘문재인 체제’를 대치할 다른 수단을 찾자는 얘기인데 (통합행동이) 문 대표에게 ‘뉴파티(New Party) 구상’을 내놓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돌된다”며 “뉴파티를 이야기하려면 조기전대는 필요없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당파 인사들은 새정치연합이 전대를 개최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새정치연합은 민심이 떠나 야권의 ‘텐트’ 역할을 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의 텐트가 아니라 신당의 텐트가 역할과 기대를 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PBC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당에 복귀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 전대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 본부장의 비판에 대해 통합행동 측은 불쾌해 하면서도 직접적인 대응은 삼갔다. 문 대표의 수도권 출마 목소리도 또 나왔다. 새정치연합 전현희 전 의원은 이날 야권의 불모지인 서울 강남을 출마에 도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며 문 대표의 강남 출마를 요구했다.

전 전 의원은 “야권 불모지인 강남에 도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스스로 혁신을 실천한다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표를 향해 “당의 단합과 총선승리를 위해 문 대표가 먼저 실천하는 혁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강남 출마를 정중히 요

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통합전당대회 주장에 대해 “우리 당의 단합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통합”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세계한인회장대회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 전당대회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지금 그 논의의 시기가 조금 이르다”며 “통합이 되려면 통합할 상대방과의 사이에 통합을 하자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그리고 나면 그 통합의 방안으로 이런저런 방안들이 논의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영주 사퇴” 결연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 왼쪽),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규탄 안건 등 긴급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 “국사 교과서 국정화”...야 “유신세력 총력 저지”

### 정치권 이념논쟁 가열

정부가 내주 초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7일 여론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현행 검정체제 강화와 국정화 전환을 모두 검토해왔지만, 국정교과서 전환 방침을 사실상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발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교과서는 2017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하고 편찬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국사 교과서는 2002년 국사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돼 검정으로 바뀌었고 2010년 기존 국정인 국사와 검정인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져 검정체제로 일원화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보를 강화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에서 현행 교과서 기술에 대해 “출판사별로 일관되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면서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 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세계한인회장단 초청 재외동포정책 포럼에서 “우리 미래 세대가 긍정적·창의적 사고를 갖고 도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진보 학계 등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결정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유신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유신 잠재세력으로 규정되고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인물

### “담배세로만 2년간 5조원 서민 증세”

### 정부 대기업 편향 정책·법인세 인하 질타

#### 김영록 새정치 의원



제가 짐체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4.2%)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과 세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제대로 된 활동이 가능한 상임위원이다. 웬만한 내공으로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급변하는 세계 경제 등을 감안, 정책적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

19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에서 기재위로 상임위를 바꾼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기업 편향 정책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 내용이 상당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법인세 인하 후,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에 이르러 있지만 재벌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쓰지 않고 공간에 쌓아 두면서 국내 경

에서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며 법인세를 2009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 값 인상과 관련, 김 의원은 정부가 담배 판매량을 과도하게 축소해왔다가 올해 8월 슬그머니 재조정에 담배세로만 2년 동안 5조원의 서민 증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달 18일 조달청 국감에서는 4대 강 사업을 담합한 대기업들이 입찰 중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특별 특별 사면을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정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

## TPP 한국 배제·폭스바겐 사태 쟁점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7개 상임위 마지막 국감

국회는 7일 외교통일위와 환경노동위, 법제사법위 등 7개 상임위에서 마지막 국정감사를 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종료 하루 전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배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이 쟁점이 됐다.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TPP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데 대해 살기론과 전략부채론을 집중 제기

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정부의 해명 및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법원 재판에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의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다가 잠시 정회 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현행법을 왜곡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선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새정치, 10·28 재·보선 후보 결정

### 함평 도의원 정정희·신안 군의원 김동근...목표는 무공천

10·28 전남 지방의원 재·보선에 나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결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함평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정정희(49·함평지역위 부위원장) 후보를, 신안 나선거구 군의원 선거에 김동근(62·신안지역위 부위원장) 후보를 당 공천자로 각각 의결하고 공천장을 줬다.

정 후보는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에서 다른 두 후보를 눌러 예비 후보로 등록된 무소속 2명과 경쟁하게 됐다.

김 후보는 해당 선거구 공천 후보에 홀로 등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머지 한곳인 목포 라선거구 군의원 선거에는 공천자를 결정하지 못해 무공천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